책자형 선거공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영등포구(갑)선거구

문병호, 그의 삶에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내일이 있다

인권변호사에서 정치 혁신을 주도하기까지 인생 스토리

정치야, 10년만 내다보자! 그리고 닥치고 개혁하자!

경제파탄! 국민경제 붕괴! 민주당은 책임져야 합니다!

경제정책 실패와 민생불안, 북핵문제 실패, 국론분열의 책임

뚝심 문병호가 영등포를 우뚝 세우겠습니다!

영등포 거주의 가치와 교육환경의 개선, 그리고 미래 산업의 유치

위기의 대한민국,
문병호가 나섰다!

인물이 다르다!

문병호 2

미래통합당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영등포구갑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2	미래통합당	문병호	남	1959. 12. 27. (60세)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제17대, 19대 국회의원(전) • 국민의당 수석최고위원(전)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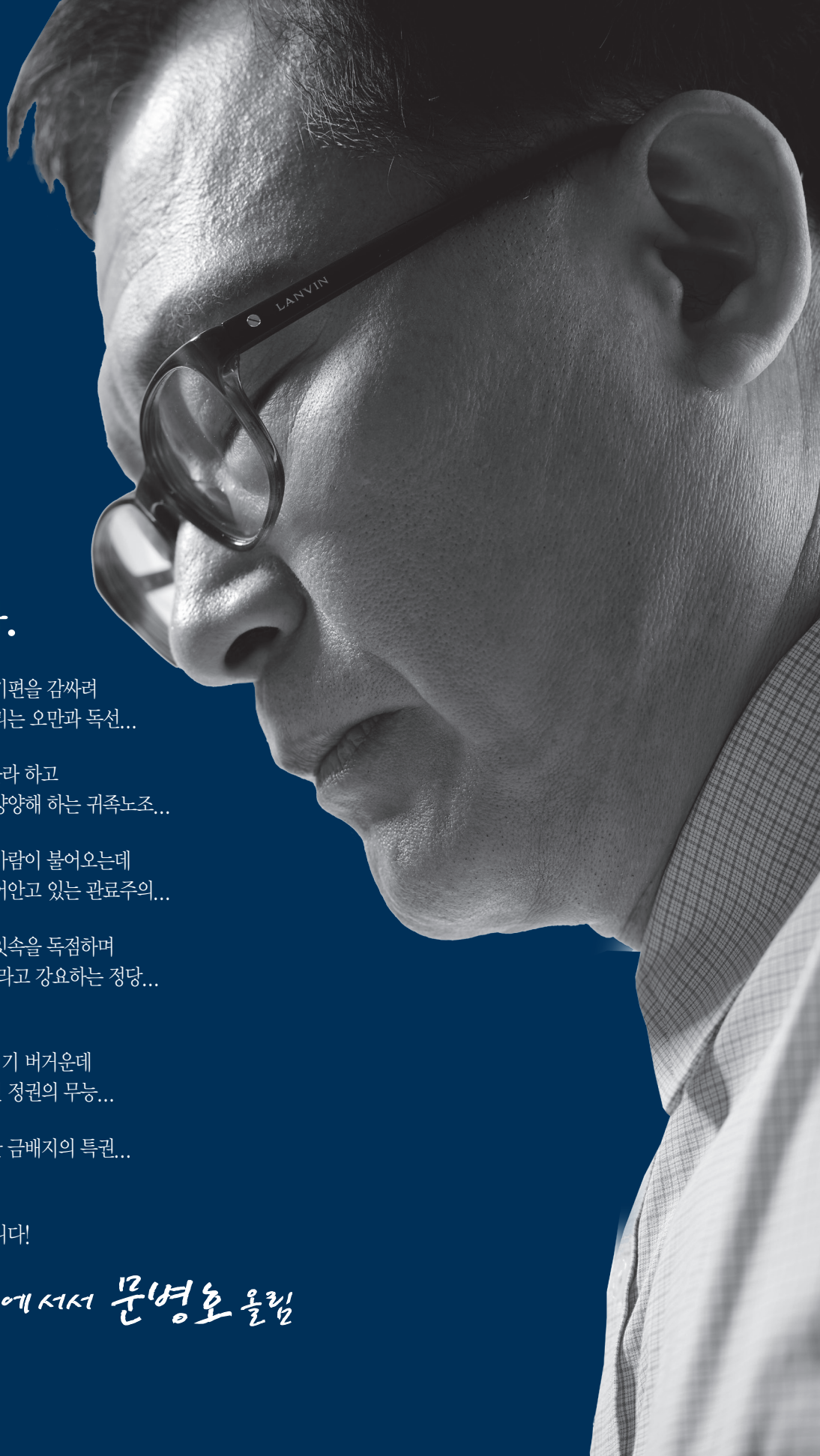
재산상황 (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 이상 직계비속
3,238,493	1,563,221	1,486,086	해당없음	189,186	소집면제 (2회 귀가)	해당없음

3.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195,033	없음	없음	· 무고 벌금 300만원 (2005.2.17)
후보자	75,100	없음	없음	
배우자	108,904	없음	없음	
장 녀	11,029	없음	없음	

4. 소명서

후보자 전과기록의 무고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후보자가 2004년 공직후보시절 무료변론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상대후보로 부터 고소당한데 대해 이를 무고로 맞고소하여 발생한 것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불공정이 판을 쳐도 자기편을 감싸려
상대방 입에 재갈을 물리는 오만과 독선...

비정규직의 애환은 나몰라 하고
제 욕심만 채우며 의기양양해 하는 귀족노조...

천지가 개벽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속 터지게 철밥통만 끌어안고 있는 관료주의...

파당을 만들어 권력의 잇속을 독점하며
이를 쫓아 내 쪽에 줄서라고 강요하는 정당...

청년은 내일이 힘들고
자영업자는 오늘을 넘기기 버거운데
내년이면 좋아질 거라던 정권의 무능...

그래도 주머니가 두둑한 금배지의 특권...

이제, 국민의 명령으로
모두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정치개혁 앞줄에 서서 문영호 올림

문병호,

청년 문병호, 세상에 눈을 뜨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다.

문병호는 1959년 전남 영암에서 태어났다. 초 · 중 · 고를 광주에서 다녔으며 1979년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대학교 법대에 진학하게 된다. 대학에 진학할 때만해도 그는 장차 검사나 외교관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청년 문병호의 눈에는 자신의 영달보다는 사회경제적 약자와 서민들이 먼저 들어왔다. 엘리트들이 우리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자신의 인생을 재설계하게 된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문병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법전과 2년 가까운 씨름 끝에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는다. 1989년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인천 부평에 최초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본격적인 노동인권변호사 활동을 하게 된다. 12년간 무료상담소를 운영하면서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 편에 서서 아픔을 같이하며 그들의 든든한 대변자가 되어 주었다.

1989.5.25.
〈법률신문〉
제5면

소외계층에헌신봉사

文炳浩변호사

시국사범과 소외계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고있는 젊은변호사가있어 화제! 인천시북구 부평1동 흥노빌딩4층에 지난3월11일 개업한 文炳浩변호사(사진). 개업한지 불과 2개월도 못된 지금 그에게는 시국사범7건에 20명, 근로자들의 임금, 손배, 퇴직금, 산재등 노동사건이 10건, 거의 무료로 수임돼있다. 文변호사가 이들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변호사회경유비, 세금, 인지대등 건당10만원에서 30만원정도.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18기로 수료.

南部善導協월례회

남부지청 소년선도위원 남부지역협의회(회장 李灝洙)는 지난18일 구로구 반도그릴에서 安在克 담당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월례회를 갖고 구·신규위원 상견례와 선도사업의 활성화방안등을 논의했다.

국회 입성과 실망, 기성 정치를 박차고 나와 스스로 가시밭길을 걷다.

문병호는 제17대 국회에 입성한다. 그가 그렸던 정치와 실제의 정치는 너무 달랐다. 국민을 먼저 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며 특정계파에 좌우되는 구조가 마땅치 않았다. 개혁을 외치면 증오의 눈길이 돌아왔다. 그는 제19대 국회에서 안정된 위치를 박차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 새로운 정치지형을 찾아 나선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출마해 26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으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정치개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의 삶에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내일이 있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포부와 열정으로 정치 혁신을 주도하다.

세상은 바뀌는데 정치는 도무지 바뀌지 않았다. 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퍽퍽해지는데 정치는 퇴행적 모습을 거듭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문병호는 이념과 진영 논리를 떠나 세계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민들의 삶을 챙겨야 한다는 신념을 잃지 않았다. 결국 그는 통합신당준비위원회 정치혁신특별위원장으로 참여하여 보수와 중도의 통합을 일구어 낸다.

미래 먹거리,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 개혁은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의 초석입니다. 4차 산업사회에서는 기술과 기술, 기술과 기업, 산업과 산업, 인간과 기술의 융복합이 이뤄지면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납니다. 지금의 규제와 규칙으로는 이 모든 변화를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낡은 생각에 머무르게 되면 미래는 없습니다. **규제를 혁파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일자리 형태로 보면 한국은 1만개, 일본은 2만개, 미국은 3만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추가적인 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과당경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 혁파만이 살 길입니다.**공무원들을 지식산업의 전문가로 양성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의 담당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지식정보에 기반을 둔 4차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규제개혁은 요원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을 지식산업의 전문가로 육성해 현장의 필요성과 산업의 추이를 간파하고 규제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양성해야 합니다.

초양극화시대를 대비해 경제 사회 교육 복지제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초양극화를 초래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보편화와 세계화라는 생태계 안에서 세계 1,2등의 기업만 살아남게 됩니다.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경쟁에서 탈락하고 사회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와 탈락한 자로 나눠져 초양극화의 길을 걷습니다. 정치는 지금부터 이를 완화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과 함께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도 강화해야 합니다.** 미래의 기업은 기술혁신과 자본의 축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한 때 잘 나갔던 일본의 소니, 미국의 GE, 핀란드의 노키아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세계 일류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이 일류기업이 되도록 투자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될 약자에 대한 안정망도 강화해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의 확대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실의에 빠져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차별의 서러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전투적 투쟁으로 일관하는 노조주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 귀족노조는 더욱 그렇습니다. 도에 넘치는 분규와 위화감을 조성하는 대신 일자리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통합을 거부하는 노조는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미래는 세상의 모든 것이 개방되고 연결되며 새로운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면서 변화에 따르는 불

정치야, 10년만 내다보자!

세계화와 4차 산업의 진전에 따라 산업구조와 그 형태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거대한 파고에 대비해 우리사회의 모든 영역을 고치고 다듬어야 그 파고를 뚫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치야, 닥치고 개혁하자!

세상은 21C 한복판을 질주하고 있는데 정치는 아직 20C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회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입니다. 갖은 특권을 향유하면서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정치, 주인을 무시하는 정치, 닥치고 개혁해야 합니다.

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주입식 교육으로는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 적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새롭게 닥쳐올 현상을 스스로 풀어가는 핵심역량을 키워주고, 아이들이 사물을 관찰하며 비판을 끌어내 이를 통해 창의적인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바꿔야 합니다.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교과과정의 개조와 이에 적합한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기본소득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초양극화 시대가 도래 하면 복지제도도 전면개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예산의 효율을 따져 기존의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실행할 것인지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실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

국회의원은 200여 가지에 이르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이 대표적인 특권입니다.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강압적 권한 행사에 대항해 국회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나 국회의원들은 범죄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도 이를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책특권을 빙자해 동료의원이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들 특권이 국회 기능을 저해하고 입법 활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경우에만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반듯이 고치겠습니다.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민간인이 70%이상 참여하는 윤리심판위원회로 바꿔 실질적으로 국민소환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계파 중심의 비민주적 정당구조를 타파하겠습니다.

민주적 정당이란 내부적으로 치열한 의견 교환과 논의를 거치면서 미래의 주제를 도출해 내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특정계파가 정당의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 선악의 구분 없이 반대 의견이 묵살되어 건전한 비판이 사라지고 정당은 사유화되고 맙니다. 저는 정당의 사유화를 막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거침없이 주창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겨 분열에 기생하는 정치를 끝장내겠습니다.

대구 팔공산 아래 사는 사람들도 대한국민 사람이고 광주 무등산 아래 사는 사람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정치인들은 지역감정을 조장, 서로를 이간질 시키며 지역감정에 기생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로 뭉쳐 세계와 싸워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분열을 획책하는 정치인들을 뿌리뽑아야합니다. '지역감정 조장 방지법'을 제정하여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경제파탄! 국민경제 붕괴! 민주당은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일으키며 잘해보라고 민주당 정권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에도 실패했고, 북핵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다 망신을 당하였으며 조국사건으로 국민을 분열시켰습니다. 무능의 연속을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회초리를 들어 매섭게 심판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갑작스런 인상은 어려운 사람들끼리 싸움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0여 년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고속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압축성장 과정에서 자본이 노동보다 과대평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소평가 되어왔던 노동을 부양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압축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소규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양산해 냈습니다. 다수의 최저사업자와 최저임금이 병존하는 구조에서 민주당 정권은 대책 없이 최저임금만 불쑥 올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끼리 대립의 관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없는 사람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선행적 정책수단의 고려 없이 막무가내로 저질러진 무능의 극치였습니다.

북핵문제를 우리 주도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정권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을 교차로 만나며 마치 북핵문제를 한국이 해결할 것처럼 선전에 열을 올렸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에 근거하면 우리는 북핵문제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북핵문제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진행될 뿐,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김정은에게 '핵문제에서 빠지라'는 핀잔을 들으며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조국사건은 우리사회를 양극단으로 몰아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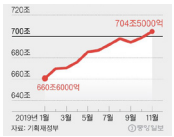
조국사건은 권력층의 불공정 행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정권은 자기 식구를 감싸 돌며 눈과 귀를 막고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패가 갈려 나라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반칙에 정직한 청년들은 분노했고 배경이 없는 부모들은 절망했습니다. 조국사건으로 두 패로 갈린 국민들은 상대방에게 적대적 비난과 상처를 주는 저주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삐뚤어진 한사람의 잘못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소득주도빈곤론'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019년 경제 성장률 2.0%. 과거 10년 동안 최저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실패했습니다. 임금을 올리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경제이론은 세상에 없습니다. 경제성장은 기업의 투자와 시장의 자율성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산으로 단기적 일자리를 늘리는 형식의 재정정책으로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소득주도빈곤론으로 판명되었고 국민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국가채무 700조 돌파
중앙정부 재정수지 악화



출처 : 기획재정부 / 중앙일보 2020.01.08일자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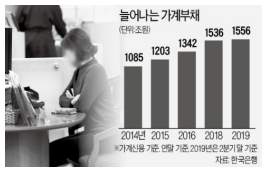
2019년 11월말 기준
704조 5천억원

경제성장율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

출처 : 한국은행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경제성장률 속보치

'19 연간 실질성장률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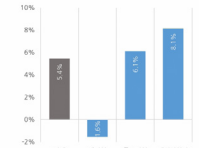
가계부채 폭증



출처 : 통계청 / 2019.12.16 KBS 보도

가구당 부채 7,91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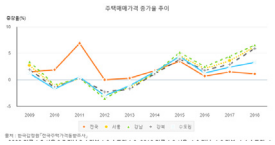
자영업자 대출 급상승 전년대비 3.8%상승



출처 :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공동 발표
'2019년 가계금융 · 복지조사'

평균부채 1억1063만원
(자영업을 운영하는 가구당)

부동산 시장 대 혼란



출처 : 2019.12.9 SBS 보도

서울지역 아파트값 폭등

국회무시한 인사

문화일보
<'임기 반환점' 文정부 평가>'7대 기준' 내세웠지만… 되풀이된 인사 참사

출처 : 문화일보 2019.11.07 보도

22명 국회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뚝심 문병호가 영등포를
우뚝 세우겠습니다!

지금의 강남 '영동'은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뜻으로 우리 영등포는 과거엔 서울의 강남 1번지였습니다. 하지만 영등포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공장지대가 생명을 다하면서 후속적인 도시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쇠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교육, 문화시설의 확충, 첨단 산업의 유치를 통해 영등포를 서울의 제3도심으로 만들어 영등포의 옛 영광을 기필코 되찾아 오겠습니다.

거주의 편리성을 개선해 주택의 가치를 끌어올리겠습니다.

영등포는 여의도와 마포, 구로디지털 단지 등 주위에 접근성이 양호한 일자리가 많아 거주지로서 적합하지만 주차난이 서울자치구 25개 중 24위로 꼴찌 수준이고 교육, 문화, 환경 등의 도시환경이 열악해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주자장법'을 개정**해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간투자의 심사를 완화해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야간주차를 허용, 구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앱 서비스를 통해 관내 주차장 이용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영등포본동, 도림동, 신길3동, 양평동과 당산동 일대**는 환경과 주택이 잘 어우러진 거주자 우선의 **구도심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람이 모여드는 동네로 꾸며내겠습니다.

청소년미래관을 설치하고 동네 작은 도서관을 확충해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복합문화타운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선제분의 자리에 청소년미래관도 함께 설치해 아이들의 진학과 **진로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개발프로그램을 만들어 영등포의 아이들을 내일의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또한 동네 도서관 확충을 지원해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영등포를 핀테크의 메카로 만들어 첨단금융산업의 성지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핀테크는 금융과 IT가 결합한 미래의 주목받는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영등포는 금융가가 몰려 있는 여의도와 IT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로디지털단지를 연결할 수 있어 핀테크 산업이 들어서기 매우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등포동 일대를 핀테크 산업단지 조성지역으로 특화해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 영등포를 미래로 이끌어 나아가겠습니다.

2 문병호

상업 · 금융 융복합단지

영등포동 일대를
핀테크 산업, 연구단지로 조성

구도심 재생사업지구

거주자 중심의
구도심 재생사업추진

친환경 도시재생 사업지구

쌈지공원 및
동네도서관 설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교육·문화 복합타운

청소년미래관,
복합문화타운 설치
제2세종문화회관
조기완공
문래창작촌 활성화

서울 제3도심 프로젝트
문병호가 완성하겠습니다!

속이 꽉 찬 정치인 문병호, 영등포의 내일로 달려갑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7대, 19대 국회의원
-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전)
- 인하대학교 법학부 겸임교수(전)
- 국민의당 수석 최고위원(전)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전)
- 통합신당준비위원회 정치혁신특별위원장(전)
- 전남 영암 출생(만60세)

국토방위와 치안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국군장병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과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기회의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모든 평화위협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군사력을 완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국가안보태세를 구축하고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고 안심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함께 극복합시다!

영등포구 선별진료소(영등포구 보건소) 02-2670-3114
일단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먼저 연락하세요.
의심증상이 있으면 1339!!

인물이 다르다!

2 문병호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3층(영등포구청 맞은편) 전화_(02) 6956-2857
https://blog.naver.com/lawmoon1
www.facebook.com/moon3055
https://twitter.com/moon3055